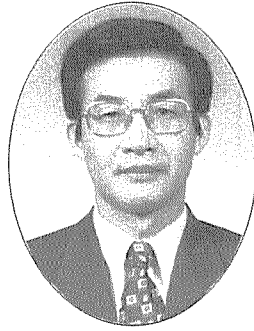


산업사회에서의 안전문화



劉 哲 眞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석기술위원〉

1. 머리말

「동양최대」, 「세계제일」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우리 국민에게 수치상으로 선진국을 능가하는 것이 있으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의 발생율이 바로 그것이다.

한해 교통사고로 360,000명 이상, 산업재해로 86,00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인적 손실과 더불어 매년 5조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므로 인명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사고 및 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범국민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 최근 사고 및 재해의 유형

최근 몇년 사이에 빈발하고 있는 대형사고 및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웠다가 침몰한 여객선
- 선로 변경조작 실수로 충돌한 열차
- 기상조건을 무시하고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여객기
- 가스누출을 무시하다가 터진 가스 폭발사고
-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한 한강다리와 대형 백화점
- 대피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다가 좌초한 유조선

등
하나같이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고 및 재해는 점차 「다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고도의 기술적 결함에 기인하기 보다는 각종 후진국형 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의 63%가 안전수칙의 미준수, 안전지식의 부족, 경험의 미숙과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가스사고의 발생도 취급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도 74%가 운전자의 법규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다.

3. 사고 및 재해의 원인

(1) 안전문제의 구조적·심층적 원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 덕분에 농경사회로부터 고도산업화사회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의 대폭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는 바

-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모하면서 교통량 및 교통인구의 대폭증가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밀집과 건물 및 아파트의 대형화, 고층화
- 산업시설의 대형화, 복잡화, 고압화
- 각종 화학물질과 고에너지의 대량 사용 등

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능률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하다보니 「물질만능주의」,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국민의 안전의식 부족, 그리고 안전교육이나 홍보 등 사회적 적응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에 사고 및 재해발생의 근원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왜곡된 국민의 안전의식

안전과 관련된 가치관을 보면 우리 국민 상당수가

「사고는 운과 재수」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도박의식과 안전의식과의 함수관계를 살펴보면 도박은 「운이 좋으면 돈을 딸 수 있다」는 未然的 확실성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안전은 「사고만 없으면 안전하다」 즉 운이 없을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관념론이 우리 국민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다.

안전은 「비생산적·비능률적」인 것으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경비와 시간상 손해」이며 「안전은 무시하여도 생활, 생존권 및 생산성에 문제가 없다」는 지속적 국민 통념이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안되면 되게 하라」, 「불도저 식으로 밀어 붙여라」, 「업무는 요령이다」 따위의 왜곡된 업무추진방식을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은 당연한 귀결이며 유감스럽지만 사고는 향후에도 끊임없이 재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재해 다발에 대한 고유의 문제점

사고 및 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데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6가지들 들 수 있다.

① 「빨리빨리」에 의한 결과제일주의

속담에 「우물가에서 승능 찾는다」,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쓴다」는 말처럼 예로부터 우리는 생활문화의 조급함에서 정상적 질서를 상실하여 왔다.

또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도 「성과제일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빨리빨리」심성이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곳곳에 투사되어 각종 사고와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국민의 「빨리빨리」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현대판×목걸이 「빼빼」의 보급율만 보더라도 1,000명당 99.7로 미국 46.1, 일본 41.8, 프랑스 5.0과 비교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괜찮아요」라고 하는 적당주의

우리의 생활 곳곳에 「괜찮아요」, 「대충대충」 등과 같이 정확과 합리를 배제하는 「적당주의」 「졸속주의」가 판치고 있다. 또한 매사에 애매함이 잔존하고 있으며, 태만 방만 그리고 은폐를 가장하는 심성이 자리잡고 있다.

③ 「설마」하는 요행주의

지금까지 안전규칙은 원칙에 불과하며 운용의 요령이 능력 기준이 되어 왔다.

「왜 하필 내가 재수없게 걸리겠느냐」라는 요행주의가 전술한 도박의식과 함께 우리 국민성 속에 잠재하고 있다.

④ 「남의 탓」에 의한 책임전가주의

「자기가 하면 세기의 사랑이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시중 유행어가 있듯이, 잘된 것은 모두 자기 덕분이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뚤어진 심성이 안전의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⑤ 「정」의 가치문화에 의한 탈법주의

우리에게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과 법적 가치기준에 우선하는 정적 가치문화가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⑥ 「노다지」에 미련 많은 한탕주의

최근의 비자금사건에서 보듯이 차분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기 보다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4. 국내외 환경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1) 인간의 근원적 안전욕구

우리는 과거 농경문화가 지배하던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전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낙후되고 생활화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오복이라 하여

- 수 : 오래 살고
- 부 : 재산이 넉넉하고
- 강녕 : 마음이 편안하고

- 유호덕 : 덕을 쌓아 스스로 마음을 흡족히 여기며

- 고종명 :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다.

는 것을 늘상 염원하면서 살아왔다. 서경에서 오복은 수, 부, 무병, 식재, 도덕을 일컬고, 신론에서는 오복을 수, 부, 귀, 강녕, 다남이라 지칭하였지만 어느 것이나 다섯가지중 세가지가 건강하게 제 명대로 오래 살다가 편안히 죽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한 매스로우(Maslow A.H.)는 「인간의 욕구 및 5단계설」 즉,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하였는데, 여기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임을 알 수 있다.

(2) 국민의 안전인식 변화

육해공, 지하, 교량, 건물, 가스 등 가릴 것 없이 연달아 터지는 대형참사는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깊은 의구심과 높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국민의 안전의식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곳곳에 산재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 위험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자기 보호의 당연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위험요소들이 개인의 생존권과 행복을 위협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달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나 관계자의 분발을 촉구하게 되었다. 나아가 안전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감하게 되었으며,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앞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다운 안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3) 국제적 환경의 변화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우선 WTO에 의한 자유무역 체제의 등장으로 환경 및 노동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되어 GREEN ROUND와 BLUE ROUND의 태동이 임박한 시점에 와 있다. 즉, 과거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제무대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1976년 유럽에서의 DIOXIN 누출사고와 1984년 인도의 보팔사고를 계기로 유럽연합(EU)에서 세베소 지침(SEVESO DIRECTIVES)을 채택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연방법으로 입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화재, 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1996년 1월부터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 및 환경인증제도 ISO 14000과 더불어 안전보건인증제도인 ISO 18000의 필요성이 논의중에 있다.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화학공장에서의 연이은 사고로 외국의 손해보험사들이 우리나라 기업과의 보험계약 기피 내지 보상한도액의 제한, 최소소불기준의 인상등 불리한 특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 및 안전보건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압력이 점차 거세어 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5. 안전문화의 창달

(1) 안전문제의 시대적 과제

안전문제는 선택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필연적 자기의 것으로 위험에 대한 자기보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안전문제 해결에 함께 활동해

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안전문제는 말이나 이론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의식변화를 통한 실천 및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안전의 생활화·체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수준의 기술기준 제정, 각종 산재예방기법의 개발, 고급 안전관리기술의 도입 등의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안전문화운동

사전에서 「안전」이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즉 심신이 좋은 상태를 말하고,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의 총체로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해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리적인 일체의 성과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인 의미를 지칭한다. 안전문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첫째 먼저 정해진 안전수칙이나 교통질서 지키기, 정리정돈 등 안전에 관한 「행동양식」을 일차적으로 변화시키고,

둘째 안전우선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 적당주의 풍조의 근절 등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정립시키며

셋째 국민의 안전의식을 안전제일의 사고와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어릴적부터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간성, 도덕성의 회복과 함께 예의문화의 확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안전문화운동이란 국민의 생활, 활동중에

안전을 생활화, 체질화 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정신 계몽운동」이라 「사회적 실천운동」인 것이다.

(3)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요소

①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안전에 관한 한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자만의 방지

「나하나쯤은,」 「지금까지 안전하였으니까」하고 방치하는 자만의 자세를 고쳐서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한다.

③ 최상의 의지

안전에 관한 한 최고의 품질일 것. 즉, 대충대충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④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을 담당하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및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안전문제는 각자 자기 소임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⑤ 집단의 자체규제의 함양

국가, 사회 및 조직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정립하여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점검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⑥ 안전으로 충만한 사고

안전에 관한 태도와 의식에서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선진산업사회의 구현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로서 안전문제를 거론하고 안전문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안전문화운동이란 사고 및 재해의 직접원인이 되는 「졸속주의」 「적당주의」의 관행을 추방하고 「안전제일」을 국민의 생활속에 최우선 「공유가치(Shared Value)」로 정착시킴, 물질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의식개혁운동인 것이다.

「안전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안전에 공짜란 없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행복한 가정의 新 부부십계명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명심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간에 탄 주머니를 차지말라.

이것은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소장 송길원 목사)가 최근 발표한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부부의 십계」중 하나. 「신판 부부 십계」를 살펴본다.

1. 결혼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결혼생활의 비극은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치유」하며 상호 「성장」해 간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결혼전에는 두 눈을 떠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아라. 결혼전에는 두 눈을 열심히 뜨고 상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장점에만 눈을 뜨고 단점에는 눈을 감아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갖지 말라.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4.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를 품은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기전에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5.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해라. 마주보면 실망과 충돌밖에 없다.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격려하며 상대방이 가는 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애정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어라. 경제적인 결정은 언제나 함께 의논해 내려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쌓인다.

7.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행복을 가꾼다.

8. 집사의 기쁨을 잘 유지하라. 섬서러운 가장 성(性)적인 것이다. 의도를 헤서는 안되며 부부간의 성적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9. 서로를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해라.

10.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중앙일보 1월 8일자>